

최태원 “한국 외 반도체 공장 신설 검토, 日 매력적인 후보지”

(SK그룹 회장)

최 회장, 니혼게이지신문 인터뷰
차기 반도체 공장 관련 계획 밝혀
“국내외 모든 지역 가능성 열어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차기 반도체 공장 구축과 관련해 국내외 모든 지역에 가능성을 열어둔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한국 이외 지역으로 일본도 좋은 후보지라고 지목했다.

최태원 회장은 11일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과 인터뷰에서 SK의 메모리 반도체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조합해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산하는 AI 팩토리 후보지로 일본을 언급했다.

현재 SK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내년 한국에서 첫 가동을 시작하는 ‘인공지능(AI) 팩토리’(AI의 핵심 단위인 ‘토큰’ 생산 공장)를 2028~2029년을 목표로 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중현학술원 이사장이 9일(현지 시간)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특별세션’에서 한일 경제 연대의 청사진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본 기업들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현재 많은 산업이 반도체 부족에 시달리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반도체 생산 능력을 한

층 더 늘릴 경우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반도체 공장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일본이 반도체 생산국이고 전력이나 재료 등 필요한 상태가 모두 갖춰진 만큼 매력적인 후보지를 언급했다. 다만

“일본에서 언제 어디에 건설할까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SK그룹 측은 일본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일본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현재 검토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2045년까지 반도체 공장 4기를 완공할 목표였던 용인 클러스터와 관련해 “완성을 수년 이상 앞당기겠다”고도 언급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내년 초 가동을 목표로 첫 번째 팹(Y1)을 건설 중이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당초 2050년까지 완료하려던 4개 팹 투자가 2030년대에 조기 완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용인 이후’의 차기 입지로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에 공장을 추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 등도 후보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반도체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공장 건설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오뚜기, 해외진출·세대교체 본격화... 성장 한계 넘는다

9월부터 日 현지 법인 영업·운영
남매 후계구도 윤곽... 지배구조 정비

국내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오뚜기가 글로벌 영토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베트남, 뉴질랜드에 이어 최근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매출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오뚜기는 지난 5월 15일 일본 도쿄에 현지 판매법인 설립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뉴질랜드, 미국, 베트남에 이은 오뚜기의 네 번째 해외 현지법인이다. 일본 법인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영업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현지 유통망 확대와 소비자 접점 강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된다. 오뚜기는 일본 시장에서 주력인 라면류를 비롯해 K-소스, 참기름 등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K-푸드 열풍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발 빠른 해외 거점 확보는 오뚜기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성장 전략과 맞닿아 있다.

오뚜기는 지난 3월 발표한 ‘2026년 기



지난 1월 전개한 윈터 팬시 푸드쇼 오뚜기 부스 전경. /오뚜기

업기치 제고 계획’을 통해 미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매출 1조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오뚜기가 해외 시장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국내 시장의 성장 정체와 지난해 겪은 실적 부진을 타파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오뚜기는 연결 기준 매출 3조 674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8% 성장했으나, 영업이익(1773억 원)은 환율 상승, 원자재 단가 인상, 인건비 및 판촉비

증가 영향으로 20.2%나 감소했다. 특히 경쟁사인 농심(해외 비중 약 40%)과 삼양식품(해외 비중 80%대)이 가파른 해외 성장세로 높은 마진율을 기록한 반면, 오뚜기는 내수 중심의 사업 구조 탓에 타격이 컸다. 오뚜기의 해외 매출 비중은 여전히 1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다만 올해 들어 글로벌 전략의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오뚜기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9552억 원, 영업이익은 5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4%, 3.28%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1분기 해외 매출액은 10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늘었으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해외 비중도 지난해 1분기 10.9%에서 올해 11.5%로 0.6%p 상승했다. 잠자는 자본을 깨워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고 성장세가 가파른 해외 시장에 자본을 재배치하겠다는 전략이 일부 통했다는 분석이다.

해외 영토 확장이라는 격변기 속에서 오뚜기 내부적으로는 안정적 후계 구도 승계와 지배구조 정비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함영준 회장의 장남인 함윤식 부장은 2021년 입사 후 경영관리부문을 거쳐 2025년 마케팅실 부장으로 승진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여기에 함 부장의 동생인 함연지 씨도 2024년부터 오뚜기 아메리카 마케팅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남매가 나란히 경영 수업을 받는 중이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이사회 정수를 기존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오는 9월 시행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비해 외부 경영 간섭을 방어하고 오너가의 승계 기반을 차근차근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으로 팽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만큼 오뚜기 역시 해외 시장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수적이고 내실을 중시하던 오뚜기가 일본 법인 신설과 미국 공장 건립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턴어라운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신선선 기자 tree6834@



metro

美, 이란 군사공격 가능성 원유·가스가격 일제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다시 요동쳤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전쟁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트럼프의 발언에 따른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가 11일 발표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8시 기준 브렌트유(Brent)는 전일 대비 2.0% 상승한 배럴당 95.00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7% 상승한 93.35달러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합의가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고, 원유·가스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 전인 지난 2월 27일 대비 WTI는 39.3%, 브렌트유는 31.1% 올랐으며, 아시아 JKM 가스 가격은 76.7%나 치솟은 상태다.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한 반면,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보합 수준이다. 이날 8시 기준 휘발유는 2009.79원, 경유는 2004.41원으로 각각 전일 대비 0.002% 상승, 0.013% 하락했다.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각각 18.7%, 25.5% 오른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0시부터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 6차 최고가격 고시를 시행 중이다.

정부 최고가격 시행으로 유가가 추가 상승 없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본의 경우, 9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6.30엔, 경유는 155.80엔으로 전일 대비 변동 폭이 0.1% 안팎에 그쳤다. 전쟁 전(2월 27일)과 비교해도 인상률이 휘발유 8.06%, 경유 10.1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휘발유는 갤런당 4.151달러, 경유는 5.303달러로 전쟁 전과 비교하면 각각 39.30%, 41.04% 상승해 국제유가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상의 “에너지 신사업 안착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편 필요”

시장 경직성 지적... “PBP 전환해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저장장치(ESS)와 가상발전소(VPP) 등 에너지 신사업 안착을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와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열고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비용기반시장(CBP) 구조가 실시간 수급 상황을 가격에 유

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경직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는 가격을 높여 수요를 분산하고 공급이 충분할 때는 가격을 낮춰 사용을 촉진하는 등 수급에 따른 가격 시그널이 작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조 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에너지 신사업 참여자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 하루 전 시장을 실시간 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발전사와 전력판매사가 양방향으로 입찰 가격을 제시하는 가격입찰제(PBP)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넬토론에서는 민간투자를 유

인할 수 있는 시장 환경과 독립적인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서진 흥익대 교수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넘어 신사업 맞춤형 보상구조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허윤지단국대 교수는 “도매시장에서의 정당한 가격발전과 소매요금의 정상화가 맞물려야 경제성이 확보된다”며 “성공적인 전력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 감독 거버넌스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편 일정이 불투명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호섭 인코어드 부사장은 “AI 기

반 예측 기술을 활용한 VPP 사업을 준비 중이나 전력시장 개편 일정이 불투명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격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전력시장 개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센터장은 “AI 시대의 전력 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들이 고비용의 신기술 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전력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혁신과 시장 환경 조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